



“대통령님 우리 말씀 들어보소”

— 본회, 정권인수위에 양육 당면 현안 건의 —

“양육업계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힘써달라”

본회는 지난 2월12일 대통령직 정권인수위원회 임채정 위원장 앞으로의 건의서를 통해 양육업계 당면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 서두에 “국내 양육농가 스스로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나,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본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사슴사육 농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본회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 사슴의무도축 시행 개선 ▲ 절편녹용 수입개방 협상 유보 ▲ 수입녹용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사슴의무도축 시행 개선에 대해 본회는 “도축환경이 미비한 현상황에서의 법 집행 강행이 결국 불법 도축업자를 양산, 농민을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농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절편녹용 수입개방 협상 유보에 대해서는 가짜, 저질품 녹용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무분별한 외화

지출 증가, 국내 농가 경쟁력 상실 등을 가져온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연간 1조원의 국내 녹용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국가적 손실인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 잠재녹용시장을 목전에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수입녹용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 피해는 물론 약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관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자에 대한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입녹용 불법유통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대폭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건의서 전문은 64페이지에)

한편 본회 김수근 회장은 조만간 농단협을 통해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와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에게 양육현황 및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노 당선자와의 만남은 지난 2월13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국양육**